

특별기고

Special



최저임금으로 6개월 살아가기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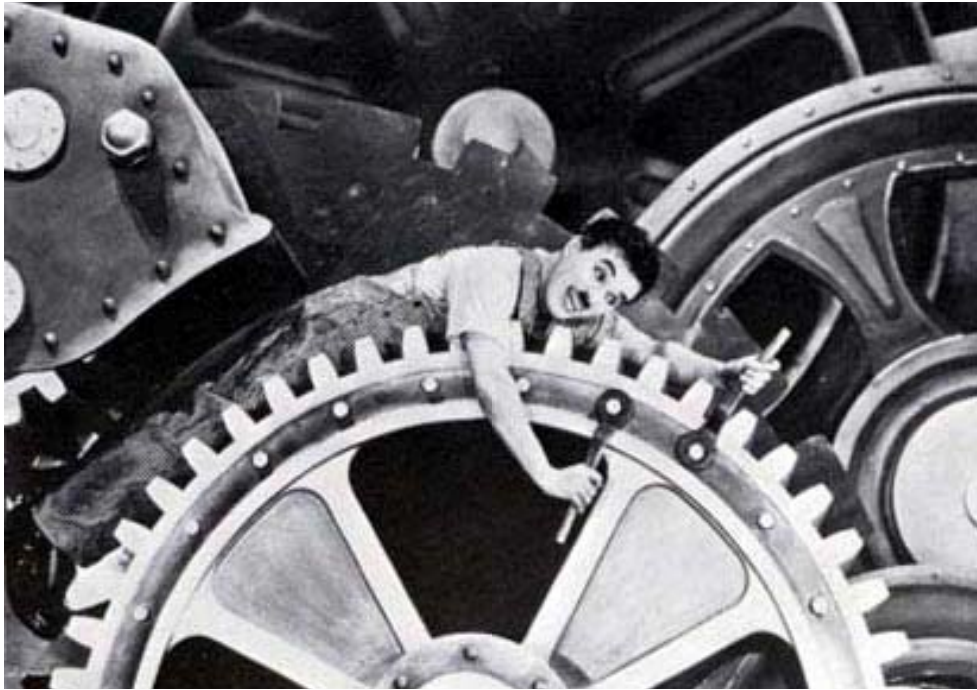
2007년 나는 신문기자 일을 사직하고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인 메데인에 가서 최저임금으로 6개월을 살아보기로 결정했다. 내 의도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생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 시절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월 225달러였다. 또한 나는 최근 30년 동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콜롬비아 역사에 한 획을 남긴 메데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도시 주민들은 마약거래가 야기하는 폭력 하에서, 또 젊은이들에게 쉽지 않은 취업 기회 속에서 살아야 했다. 비록 최근 10년 동안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가난한 일부 동네는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 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이런 곳들 중 한 곳에 사는 어느 가족 집에 세 들어 함께 살았다. 이 경험에 대해서는 여기에 실린 글에 선행하는 두 개의 챕터에서 이야기했다. 여기에 실린 글은 전체 글의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아복 공장 창고에서 일한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그 공장에서는 단 한 사람만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여기에 실린 글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한 챕터가 더 오는데, 이는 내가 동네 친구를 초대로 가끔 가던 살사 바에 대한 내용이다. 그곳은 빈자와 부자,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 사이의 모든 차이가 소멸된 만남의 장소였다.

49번 사물함

투토 콜로레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백 명의 직원들은 나에게 대해 거의 눈치 채지 못했다. 내가 배우가 된 셈이지만,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엑스트라에 더 가깝다. 이 모든 게 대형 사기극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 이미 나는 창고 직원일 뿐이다. 그렇게 하루에 열 시간씩, 한 달이 지났다. 회사에서 지낸 4주 동안 반복한 말이라곤 “네, 반장님”, “아니요, 반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같은 단문의 몇 마디에 불과했고, 황새치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2층에 위치한 내 자리로 이동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매일매일 옷이 담긴 봉지를 우주선 늑골처럼 생긴 철제 선반에 보관한다. 티셔츠와 저지셔츠 재고품을 학교식당 식탁만큼 긴 탁자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상사의 지시를 수도승마냥 겸허한 태도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 신경질적인 인간은 나나 동료들이 근무 중에 음악을 듣는 것을 금지시켜버렸다. 공장의 다른 층에서 일하는 직공들은 락체라나 메렝게, 발라드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얼굴을 덜 찌푸린다. 우리만 사운드트랙 없이 일하는 셈이다. 만약 뭐라도 흥얼거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곡이든 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 첫째, 함께 일하는 남자들은 제 부인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나 떠들어대는 데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것이고. 둘째, 나는 머릿속으로 내 삶을 마치 루빅 큐브처럼 이리저리 분해시키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근무는 오전 6시 45분에 시작된다. 바로 그 시각에, 말을 우물대는 대머리 경비원이 건성으로 아침인사를 하면서 공장 문을 열어준다. 입구에서 내 이름이 적힌 노란 카드를 찾아 작은 금고처럼 생긴 금속 시계의 홈에 밀어 넣는다. 아침부터 이렇게 족쇄 채우듯 딸깍거리는 소음은 듣기 싫다. 다만 오후 다섯 시,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나는 소리는 꼭 음악소리마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1936)중에서

있도록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 같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출근카드를 찍을 때마다 하루 하루에 값을 매기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내 하루의 값어치는 14,500페소(한화 약 9천원)이다.

다른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기 전에 49번 사물함에서 작업복을 꺼내고, 유일하게 소변기가 있는 2층 끝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다른 화장실은 최종 작업반에서 근무하는 여공들이 사용한다. 그들은 한 층 위에 위치한 재봉틀 기계에서 나온 옷을 검수하고, 개키고, 포장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공장 제일의 미녀인데, 체크무늬 가운을 두르고 투우사에 버금가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블라우스나 바지, 원피스 따위를 재봉한다. 내 옷으로 말하자면 간단하기 그지없다. 깃이 너무 두꺼워, 일하던 첫 주 내내 내 목을 조인 푸른 멍멍이의 면 티셔츠, 시내에서 15,000페소에 구입한 것으로 밑위길이가 심하게 긴 청바지, 그리고 장갑처럼 느껴지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전부다. 오직 이놈들로 10시간에 걸

친 내 하루 근무시간을 버티는 것이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급료는 체불되고 신발은 조여오기 시작했다. ‘카드 찍기—작업복 입기—수량 세기—보관하고 상자 나르기—다시 카드 찍기’의 일상적인 업무를 고분고분 충실하게 했건만, 보름마다 지불되는 급료는 벌써 이틀이나 늦어졌고, 면도칼과 감기약을 사야 했는데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둘 중 하나밖에 살 수 없었다. 부업을 찾아볼까도 생각했다. 가령, 동료 하나는 주말마다 노점에서 핫도그를 팔았고, 또 다른 동료는 약국 심부름꾼으로 일했다. 그들은 1주일에 7일, 1년 52주를 일했고, 빈민가에서 자랐다. 그곳에는 두 달마다 오토바이를 갈아치우던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죽었지만 말이다. 공장에서 카드나 찍고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은 걸까?

신고 있던 신발이 나를 죽여 버릴 것 같던 날, 회사의 비서에게 왜 아직도 급료가 지급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애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버스비도 떨어지고

투토 콜로레 공장은 메데인의 산업단지인 과야발 거리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도로에는 버스 매연에 새까매진 나무가 있고, 주위엔 노엘 제과, 콜롬비아타바코 사(社), 포스토본 음료, 에스트라 플라스틱 등 거대하고 강력한 이웃 공장의 굴뚝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둘러싸고 있다. 투토 콜로레는 2년 전, 2층으로 된 낡은 가정집에서 지금의 5층짜리 벽돌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도약 때문인지 회사는 맥을 못 추었다. 20세기 초 메데인에 세워진 여타 초기 섬유 공장처럼 이 회사도 한 가문의 소유이다. 고(故) 에르네스토 코레아 전 회장의 다섯 아들이 경영을 나누어 맡



산업단지 과야밭의 전경

고 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회사 창업주는 이제 액자 속의 오래된 사진으로 살아남아 있을 뿐이다. 각층 입구에 붙어 있는 사진은 마치 수호성인 같은 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경영의 지혜에서 따온 문장인 “노동만이 파산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자본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노동절 다음 날인 5월 2일 오후, 작은 키의 투토 콜로레 공장 사장은 여느 때처럼 한 손에는 작은 가죽가방을 들고서—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급여가 늦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소집했다. 날짜가 날짜인지라 역설이라기보다 잔인한 농담같이 느껴졌다. 계단에 나타난 그는 마치 어머니에게 사실은 자기가 입양된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춘기 소년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30년 가까이 회사가 존속되는 동안 이번이 회사 재정 상 역대 최악의 분기입니다.”

재봉틀 층에서 일하는 세 아이를 둔 여공이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임금 총액은 보름마다 약 5천만 폐소였다. 사장은, 꼭 학교 숙제를 하는 것처럼, 체불 이유를 읊어댔다. 첫째, 철썩 같이 믿던 여직원 하나가 수백만 폐소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바람에 회사 재정에 구멍이 났다. 둘째, 중국이라는 용이 파나마를 통해 값싼 제품을 들여와 우리 목덜미에 숨을 뿜어대고 있다. 셋째, 달러 환율이 6개월간 500폐소나 하락하였다. 이쯤에서 나는 듣기를 멈추고 자제가 안 되는 사장의 한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알아채기 거의 힘든 미세한 경련성 움직임이었는데, 5초마다 오른쪽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나의 동료들은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장은, 불안해하고 창피해하면서 나쁜 소식을 계속 전했다.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거액의 채무자들이었는데, 그 예로, 상당한 액수를 우리에게 지불해야 하는 한 멕시코 회사가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아마 직원들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직원 한 명이 유일하게 질문을 던졌다.

“내일 버스비가 없는데, 어쩍니까?”

먹이사슬에 비유하자면, 투토 콜로레는 섬유산업계에서 아무 고래나 집어삼킬 수 있는 중간 크기의 참치에 불과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플랑크톤이고, 급료가 체불되었으므로, 노동자들은 며칠 뒤엔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어질 것이고, 교통비를 구하기 위해 더 여유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집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싸구려 농담을 던져가며 집세를 좀 더 미뤄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은 투토 콜로레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상반기에만, 이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12,000명의 근로자가 이미 실직했거나, 아니면 해고당하기 전에 먼저 일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나에게, 자기는 초코 주로 가서 철물점을 낼 것이라고 했다. 투토 콜로레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오후는 마침 어머니 날이었다. 그도 이 공장에서 등골 빠지게 일한 지난 15년간의 세월이 있었으니, 케이크 한 조각, 건포도와 럼주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등을 토닥이는 격려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었다. 도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수천 명의 파이사들이(안티오키아 주 티오키아 지역민) 미개척지에 활로를 열었고, 위대한 공장의 도시 메데인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손들은 다시 축축한 밀림으로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도시의 비극

어느 날 아침, 집에서 출근하기 전, 지갑에 보관해 둔 작은 달력을 꺼내 선을 하나 새로 그었다.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한 후, 마치 적군의 비행기소리 아래에서 애인의 사진을 꺼내보는 군인처럼 나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오늘, 7월 3일 화요일을 지웠다. 일주일 전부터 내 정신건강을 위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맡기로 했다. 투토 콜로레의 기사를 따라다니며 공장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한 마무리—예를 들어, 이중 단추라든지—작업을 담당하는 가내 작업장을 돌아다니는 일이다. 나는 전직 조수의 일을 대신 맡게 되었는데, 그는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 급료를 주는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어쨌든 나는 창고에서 벗어나 도시의 거리로 나왔고, 지난 4개월간의 로봇과 같은 노동에서 스스로를 구출해 냈다. 유아 속옷 수량을 세면서 보낸 나날들이었다.

어느 오후에는 1,253벌의 옷을 세었고,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기 위해 그 숫자를 종이에 메모했다. 창고의 한 동료는 여기 오기 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노엘 제과의 한 생산 라인에서 수백만 개의 과자가 줄지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3년 반을 일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었다.



메데인에서 흔히 보이는 구멍가게

또 한 동료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했는데, 휴일이라곤 한 달에 하루뿐이었다. 퇴근 시간에 그가 사물함 앞에 서서 말했다. “그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일하다 죽어도 상관없었어. 돈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그 곳에서의 몇 달간, 그는 6킬로그램이 빠졌다.

이 곳에서의 몇 달간은, 겨우 1킬로그램 반이 빠졌다.

나는 이제, 머리가 희끗하고 건장한 체격의 하이메 이사사 씨 조수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는 회사 밴을 운전하며 메데인을 누빈다. 우리는 벌써 7일 전에 5만 페소어치의 기름을 채웠고, 작업이 끝난 수많은 옷자루를 거두기 위해 이 작업장 저 작업장을 돌아다닌다. 집 안 거실이나 부엌에 차려진 이 미니 작업장은 대부분 가난한 동네에 위치해 있는데, 지붕에 붙어 있는 네온 불빛과 옷을 만드는 분주한 기계소리 덕에 길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은, 만리케 동네에 있는 곳으로 애꾸눈 개가 지키고 있는 오래된 집이다.

그 집의 주인은, 다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옷차림의 아주머니인데, 이사사 씨와 내가 뱅에 옷자루를 가득 채우고 나면 항상 과일주스를 준다. 슬쩍 봐도 이 옷자루가 더 많이 팔려서 첫 분기의 경영난 해결을 책임질 것이다. 적어도 새로 온 사장은 그렇게 믿는다.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사람으로 공장 바닥에 떨어진 실 가닥을 하나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곤 한다. 그에게 이 옷자루는 멀리에서 찾아온 반가운 소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편배달부인 것이다.

오늘, 7월 3일 화요일은 알라스카의 여름날처럼 긴 하루였다. 오전 9시, 이사사 씨와 나는 리오네그로 공항으로 가서 화물 적재구획에 수출품을 부렸다. 세관 직원은 이사사 씨에게, 스페인으로 가는 이 옷 사이에 숨겨진 마약이 없다고 신고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뱅에서 옷을 내리기 전, 그들은 서류 증명을 위해 상자를 배경으로 이사사 씨의 사진을 찍었다. 만약 스페인의 담당부서가 의류 사이에서 코카인을 발견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으리라.

오전 10시경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비가 내렸다. 우리는 공항에서 빠져 나와 재봉틀 기계를 전해주기 위해 메데인에서 삼십 분 거리에 있는 마을인 라세하의 협동조합으로 향했다. 기계를 내리는 동안 이사사 씨는 나에게 이 협동조합에서 파는 채소를 어머니께 사드리고 싶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는 데 쓰려고 했던 3,000페소를 빌려주었다. 오후에 퇴근하면 가끔 시내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 메데인에서는 오래된 술집을 그렇게 부른다. 고독한 안티오키아인을 위한 찻집 같은 곳이다. 탁자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은 열대지방의 게이사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녀들은 아구아르디엔테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주크박스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이사사 씨처럼 큰 손을 가진 사내들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준다.

뱅 창문을 열고 젖은 잔디 냄새를 맡으며 메데인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사사 씨가 내게 무언가를 가리킨다. 테켄다마 폭포이다. 이사사 씨는



테켄다마 폭포

월급에 좀 여유가 생기면 애인을 데려와 송어를 먹으며 산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를 구경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사 씨는 나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권유했다. 50이 넘은 그에게는 한 명의 애인과 두 명의 전처가 있다.

오후 1시 반, 점심을 먹기 위해 회사로 돌아왔다. 다른 날처럼 15분 안에 5층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점심을 데워 게걸스럽게 먹어치워야 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규 점심시간이고, 메뉴는 닭찜 두 조각, 밥, 감자튀김, 반쯤 익은 바나나였다. 2시가 지나 창고 반장, 그러니까 음악 감각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 남자가 단추, 고무줄, 옷 태그를 도시 북쪽 13구역에 있는 산하비에르의 한 작업장에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 “몇 년 전엔 발도 들여놓지 못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지.” 이사사 씨가 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수년 전, 지금 내가 사는 동네처럼 급경사의 꼬불꼬불한 길로 이루어진 산하비에르에서 검은 헬리콥터가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뉴스를 본 기억이 난다. 그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이 민병대와 준군사조직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공중전화 박스로 가다가 날아다니는 총알을 맞고 죽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이 콜롬비아 도시 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그날 아침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이사사 씨와 함께 30분 동안이나 산 하비에르의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그 사이에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젊은이들을 여섯이나 보았다.

오후에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옛 쓰레기 처리장에 세워진 한 동네에 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수거해야 할 옷자루는 한 다스 정도였다. 그곳은 모라비아였다. 혹은, 모라비아에서 남은 곳이었다. 내가 메데인으로 오기 전날 밤, 그곳에서 화재가 나 200여 채의 집이 불에 탔다. 이사사 씨와 내가 돌아다니는 코스는 이제 이 도시의 비극을 확인하는 경로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모라비아에서만큼 주인 없이 방황하는 개를 많이 본 적이 없다. 오후 4시 반, 우리는 타는 목을 움켜쥐고 공장에 도착했고, 곧바로 자루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퇴근 시간인 5시가 다 된 시각,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은 기분이다. 옷자루를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의 옷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걸 배운 것이다. 지금 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등에 짊어지고 가는 이 자루에는 두꺼운 면으로 된 바지가 있고, 그 때문에 이렇게나 무겁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손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무게를 맞추는 보석계의 명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런 명인이라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겠지만. 하지만 유일한 진실은 계단 끝에 이르니 내 척추 뼈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뿐이다. 모라비아에서 가져온 마지막 자루 때문이었다. 척추 측만을 예방하기 위해 재단 작업반에서 벨트를 빌리는 걸 또 잊었다. 보디빌더가 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닮은 벨트인데, 만약 이 벨트를 매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한다면, 5년 안에 내 척추는 S자로 휘어버릴 것이다.

10시간의 근무가 끝나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티셔츠 차림으로 최종 작업반에다 자루를 내려놓는다. 그곳은 텅 비어있다. 옷을 검사하는 여성들은 오후 3시에 퇴근했다. 빈 자리 사이를 걷자니 우울해진다. 주인을 잃고 흩어진 작업 도구만큼 애처로운 것은 없다. 어느 자리에는 곰이 그려진 노트 한 권, 누군가가 잊고 간 머리끈, 끝에 이빨 자국이 있는 볼펜이 보인다. 또 다른 자리에는 옷에 ‘용감한 마음’이라는 문구를 찍는 기계가 보인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오랜 세월을 이 회사에 바친, 이 작업반의 여반장이 앉은 의자에 다가간다. 그녀는 메데인에서 45분 정도 떨어진 칼다스라는 마을의 강 옆에 산다. 그 집 식탁에 붙은 포스터에는 한 남자가 등을 진 채 올바른 길과 파멸의 길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올바른 길에는 곡괭이, 웃고 있는 여자와 아이들, 정원이 딸린 작은 집 한 채가 있다. 파멸의 길에는 아구아르디엔테 한 병, 지폐 다발과 동전, 무기와 관이 있다. 내가 그 포스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이사사 씨와 옷자루를 수거하러 그 집에 가보았기 때문이다. 여반장은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해, 주말마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한다. 여기서 돈 몇 푼은 그야말로 돈 몇 푼이다. 옷 한 벌을 걸어 봉지 속에 넣으면 150페소(한화 약 100원)를 벌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몇 달 전에 이 포스터를 봤다면, 참을 수 없는 이원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나 역시 세상에는 두 가지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루스 가스트로 여사는(그분의 이름이다) 자기 집에 정원은 없을지언정 올바른 길을 택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일 관련 질문을 하러 갈 때마다 그녀에게 뿜어 나오는 평온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옆에 서 있으면, 그녀의 평화로운 내면에서 솟아난 무언가가 나를 어루만진다. 이 말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으로 들린다는 걸 알지만, 내게는 더 나은 설명도 없고 귀찮게 찾고 싶지도 않다. 칸틴플라스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가끔은 세상사가 그렇고 그런 것이다. 칸틴플라스가 “진

정 순간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가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여기 있었으면 했다. 그런데 그 대신 내 상사가 다가와 시킬 일이 또 있다고 말한다. 도시의 다른 편에 있는 동네인 카스티야에서 옷 세 자루를 수거하라는 것이다. 오후 4시 50분이다. 지칠 줄 모르는 이사사 씨가 차에 시동을 켜놓고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별 케이크

메데인에 도착해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다섯 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지금은 금요일 오후, 회사의 2층 끝 화장실에 앉아 있다. 귀를 기울이면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다. 눈을 감아도 5층의 재단사, 4층의 자수공과 날염공, 3층의 재봉틀 50대가 눈에 선하다. 이 시점에서 컴퓨터 자판 소리만큼 익숙한 소리들이다. 상사가 내가 만성적인 설사병이 있다는 얘기를 믿어야 할 텐데.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메모를 해두기 때문이다. 이 검은색 수첩에 무언가를 쓸 때마다, 대답은 마치 동방으로 떠나는 상선처럼 멀어져만 간다. 어느 젊은 여공이 초코 비스킷과 함께 내게 건넨 편지를 화장실에서 촉촉해진 눈으로 읽은 적도 있다. 내가 이 공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사막과 같은 곳을 통과하는 동안, 바로 이곳 화장실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회사에서 일한 후로, 성경의 은유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나를 찾아온다. 버스가 투토 콜로레가 있는 과야발 거리의 모퉁이에 출근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일찍 도착한 날에는 근처 성당까지 걷기로 하곤 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교적 충동이였다. 마지막 줄에 앉아,

그리스도 상을 향해 오후 다섯 시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함께 출근 카드를 찍는 시간이 너무 일찍 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딱 두 번, 나는 이 곳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루스 여사를 보았다. 짧은 기도 후에는, 100페소짜리 부뉴엘로 빵을 파는 빵집에 갔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언제나 같은 화장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기 전에 그 빵이 성체라도 되는 양 먹곤 했다.

물을 내린 후, 손을 씻고 거울을 바라본다. 메데인에 오기 직전에 자른 머리가 다시 자랐다. 그날 오후 미용실에서 나왔을 때, 내 삶에 괄호가 하나 열렸다. 그리고 그 괄호가 닫힐 때까지는 겨우 몇 시간이 남아있다. 오늘이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 것이다. 과자와 편지를 선물한 아가씨가 나를 부른다. 금방 음식이 도착했단다. 창고 동료들이, 단 한 번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남자를 위해 케이크와 코카콜라를 준비했다.

[이수정 옮김]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멘도사(Andres Felipe Solano Mendoza) - 1977년 콜롬비아 보고타 출생, 로스 안데스 대학교 문학과 졸업. 2010년 영미문학잡지 《그란타》(Granta)의 '유망 스페인어 소설가'(Best of Young Spanish-Language Novelists) 22인에 선정. 저서로는 『조 루이, 나 좀 구해줘』(Sálvame, Joe Louis, 2007), 『쿠에르보 형제』(Los Hermanos Cuervo, 2012)가 있다.

이수정 - 스페인 살라망카대학 사회과학부 동아시아학 사회문화전공 석사 졸업.